

초록번호 22-6

제 목	국 문	분만기관의 선택과 평가		
	영 문	Choice and evaluation of medical institution for deliver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한달선, 권순호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영 문	Dal Sun Han, Soon Ho Kwon Hallym University Health Services Research Center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권순호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b>1. 연구 목적</b></p> <p>의료기관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기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부들의 분만기관 선택과 평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만을 위한 의료기관 종류별 선택의 연관요인을 파악한다.</li> <li>2) 산모의 분만기관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관찰하고 연관요인을 이해한다.</li> </ol> <p><b>2. 연구 방법</b></p> <p>1996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분만한 서울시내 거주 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표본은 산모의 교육수준별, 거주지역별 분포가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나타난 1996년도 서울시내 산모들의 분포와 동일하도록 할당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설계는 의료기관 분포의 지역별 차이와 의료이용의 사회경제 수준별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서였으나 이 조사의 표본이 서울시내 산모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못되며, 따라서 기술 통계치들은 어떤 모집단에도 일반화될 수 없다. 1998년 2월 중에 훈련된 면접원들이 가정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응답부인의 수는 319명이다.</p> <p>분석방법으로 목적과 변수측정치에 특성에 적합한 통계기법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 변수의 측정에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적용한 경우가 많아서 통계기법의 선택에 제약이 많았다.</p> <p><b>3. 연구결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만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의료기관 속성은 진료의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실력 우수성, 응급/위험대비 시설의 구비상태였으며, 반면에 직접적 진료비용과 교통, 대기시간 등과 연관된 간접비용에 대하여는 고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분만진료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진료기술 수준의 분만기관 선택기준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속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li> </ol>				

2) 대체로 대형의료기관 이용자는 분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진료기술 수준을 중요시하고 의원이나 병원 이용자는 간접비용을 중요시한 경향이 있었다. 선택기준으로서 의료기술외적 질이나 직접비용을 중요시한 정도는 이용 의료기관 종류별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유계층과 분만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는 부인들에서 상대적으로 3차기관과 종합병원 이용이 많았고, 의원 이용은 적은 편이었다.

3) 의료수요자는 질과 가격 측면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진료과정에 참여함에 있어서 적극적 소비자로서 보다는 수동적 입장에서 환자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만기관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2 개소 이상에 대하여 정보수집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인은 16.9%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가 수술분만을 권할 경우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응답은 54.2%로서 비교적 적어서 독립적 판단의 성향을 보였으나, 이것은 임산부들의 소비자의식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에 대한 불신이 비교적 강한 편임을 말해주는 소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임산부의 특성과 소비자의식 간에는 상관이 약한 편이었다.

4) 개괄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은 편이었고, 종류별로 보면 3차기관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이었다. 영역별 평가에 있어서는 진료기술 수준에 관한 평가가 좋은 편이었고, 직접비용에 관한 평가가 가장 나빴다. 선택할 때는 직접비용에 대한 고려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난 소견과는 대조적인데,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비용지출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탓일 가능성도 있다. 진료기술적 측면에서는 3차기관과 종합병원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비용측면에서는 의원과 병원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진료기술외적 질은 모든 종류가 서로 비슷하였다.

#### 4. 고찰

1) 3차기관과 종합병원은 진료기술 측면의 평가에서는 의원보다 훨씬 높았지만 다른 영역의 평가에서는 비슷하거나 낮았다. 기술 수준이 분만기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형 의료기관이 다른 측면에서 불만을 사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이 줄지 않을 것으로 봄이 옳겠다. 그리고 임산부들의 정보탐색이 활발하지 않았는데도 독립적 판단의 성향을 보인 임산부가 반수 가까웠다는 것은 의료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의원 등의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하여 높을 것이다.

2) 정보탐색 노력이 임산부들의 분만기관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신이 추후에 의료기관을 선택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 권고에도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제공을 의료수요자들이 자신의 처지와 목적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만족스러운 의료이용을 체험하도록 하는데 주요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분만진료와 관련해서 관찰한 의료기관 선택과 평가가 다른 진료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적으나, 진료의 특성을 분석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몇 가지 종류의 진료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다면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